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상 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일 웅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상 우

김상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이 석 원 (인)

부위원장 박 정 훈 (인)

위 원 권 일 웅 (인)

국문초록

근래 많은 20·30대 학생들이 본인 직업에 대해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그들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에는 다수의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선 외부적인 요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직업 내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9 GOMS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을 매개하여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으로 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과 유의성을 보였다. 직무만족도는 아니지만 월평균소득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공계열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어머님의 학력과 부모님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소득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 월평균소득이 높다고 하여 직무만족도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종합해보면 학생들별 교육격차를 줄임으로써 이들이 직무 내에서 가지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소득이라는 격차가 이들이 직업 내에서 가지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받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금과 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받는 영향 격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자녀의 전공계열과 부모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계열과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전공계열 선택에 있어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학과를 완전히 통폐합할 때

해당 학과의 학생들이 과연 다른 전공계열 내에서 비슷한 만족도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무만족도, 월평균소득, 전공계열
학 번 : 2021-24700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5

제 1 절 직무만족도 실태 ····· 5
1. 조기 퇴사율의 증가 ····· 5
2. 적성과 전공선택, 전공과 직무 미스매칭 ····· 6

제 2 절 전공별 직무만족도와 소득 미스매칭 ····· 8
1. 대학기관 내 전공계열 ····· 8
2. 국내 전공계열별 취업률 및 임금 ····· 8
3. 전공계열에 따른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 ····· 9

제 3 절 이론적 논의 ····· 11
1. 인적자본이론 ····· 11
2. 신호이론 ····· 12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 13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선행연구 ····· 13

2.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 14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변수의 설정 ····· 17

제 1 절 연구 설계 ····· 17
1. 연구의 분석틀 ····· 17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19
3. 연구 대상 및 자료 ····· 22

제 2 절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 ····· 23
1. 종속변수 ····· 23
2. 독립변수 ····· 23
3. 매개변수 ····· 24
4. 통제변수 ····· 25

제 3 절 분석 모형 및 방법 ····· 28
1. Baron & Kenny(1986)을 활용한 매개효과 방법 ····· 28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 31
3. 분석 방법 ····· 34

제 4 장 분석 결과 ····· 38
제 1 절 기초 자료 분석 ····· 38
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 38
2. 상관분석 ····· 39
3. 다중공선성 진단 ····· 41

제 2 절 직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2
1. 1단계: 전체효과 분석결과 ····· 42

2. 2단계: 매개효과 분석결과 ····· 44
3. 3단계: 직접효과 분석결과 ····· 51

제 3 절 분석결과의 요약 ····· 54

제 4 절 실증분석의 종합 ····· 57

제 5 장 결론 ····· 59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 61

참고문헌 ····· 62
부록 ····· 70

Abstact ····· 71

표 목 차

<표 1> 전공계열별 취업현황 ····· 9
<표 2> 변수에 대한 설명 ····· 27
<표 3> 매개효과의 성립조건 ····· 30
<표 4>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 39
<표 5> 상관계수 ····· 40
<표 6> 전체효과 분석결과(1) ····· 42
<표 7> 전체효과 분석결과(2) ····· 43
<표 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다른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 ····· 47
<표 9> 전공계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 ····· 47
<표 10> 직접효과모형 분석결과(1) ····· 51
<표 11> 직접효과모형 분석결과(2) ····· 53
<표 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직무만족도 (종합) ····· 55
<표 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월평균소득 (종합) ····· 56
<표 14> 실증분석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 ····· 58

그 림 목 차

<그림 1> 재직 1년 이내 '조기 퇴사' 경험 유무 ····· 6
<그림 2>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 정도 ····· 7
<그림 3> 연구분석틀 ····· 18
<그림 4> 매개효과 모형 ····· 29
<그림 5> 전공별 직무만족도의 평균 ····· 50
<그림 6> 전공별 월평균 근로소득의 평균(만원) ····· 50

부 록

VIF(분산챙창지수)검정 ····· 3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은 오직 배우자뿐만 있다"라는 말이 있다. 결혼 상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갈 배경과 환경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혈연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선택이다. 성장해 나가는 배경과 환경과 같은 요소의 형성에 있어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기에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아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호선의 글은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 막중함을 보여준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고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본다. 부모는 아이의 학교이며 입학과 졸업이 정해진 학교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다녀야 하는 학교다. 모든 원초적 배움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하다. 내가 몰상식과 비양심과 반도덕에 기울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내 자녀가 나와는 정반대로 상식과 양심과 도덕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바람 풍'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서 '바람 풍'하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몽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여럿 존재한다. 부모가 자녀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부모의 사회경

제적 부문이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청년들은 단순히 취업을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느끼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 배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직무내에서 활용되는 것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20·30대 청년들이 자기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해 일찍 기업에서 퇴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성장과정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부모와 관련된 자식의 부의 세습 방법에는 교육을 통한 세습과 자산 상속을 통한 세습이 있다(방하남·김기헌, 2001). 자산을 통한 세습은 기존에 축척된 부를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여 부를 세습하는 방법인 것에 비해 교육을 통한 세습은 부모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위한 환경과 교육을 위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을 통한 세습은 기존에 축척한 금전적 부를 토대로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위한 열쇠라고 불리기도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배경이나 모습은 자녀에게 있어 가치관과 목적을 세우는 중요한 지침이다. 즉,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밴치마킹하며 배워가는 대상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방식은 부모의 학력으로부터 보여진다. 학력은 특정인이 자라온 배경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현 직업 안에서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Heckman and Lochner(2000)이 제시하듯 교육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더욱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가 전공계열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선택한 전공계열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의 직무만족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고자 하며 부모의 소득과 학력을 통해 이를 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자녀의 전공계열을 매개하여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분석시스템에서 조사한 2019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바탕으로, 국내 2~3년제·4년제·교육대 대졸 응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GOMS는 최근의 청년층 고용문제 중 대학졸업자의 고용 악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하는 횡단면 조사이다. 조사가 시작되었던 2006년에는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지만, 2012년 이후 횡단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대학유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가입보험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마주칠 경험과 연관된 항목들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1).

연구대상은 조사시점 이전년도의 졸업생 자료를 기준으로 학교별 무작위로 추출한 대학생으로 학과 소분류별로 층화추출된 집단으로 전국 5개 권역, 성별, 학교유형별로 통계가 유의하도록 추출되었다. 실제 근무지 안에서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 초년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했다. 조사된 시점의 경우 2018년 8월과 2019년 2월에 진행된 조사이지만 조사를 2018년 9월 1일을 기점을 회고하여 설문 대상자들이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모든 표본들이 동일한 시점에 설문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논문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약계열의 경우, 속해 있는 전공들이 대체적으로 학부생활을 마친 후 필수적으로 실습생으로써 일정한 기간동안 일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의약계열 중 의예과의 경우, 의대생으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의사국가고시를 보는데, 합격하는 경우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 동안 인턴생활을 거친 후 4년동안 레지던트과정을 수행한 후 자신의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즉, 졸업 직후 인턴으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의예과 학생의 경우, 해당 연구에서 인턴 과정의 학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의예과뿐만 아니라 의예과계열의 전공들은 대체적으로 졸업 직후 필수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과정을 밟기에 이들은 인턴인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부모로 인해 생기는 요인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나아가 근무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대학에 어떠한 전공계열이 있는지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계열이 해당 학생이 속한 근무지에서 받는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대졸자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느끼는 바의 질적 측정량인 직장 내 직무만족도와 양적 측정량인 직장 내 월평균소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부모의 요인이 미치는 요인과 전공계열 선택을 매개하여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응답한 대졸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독립변수는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으로 그리고 종속변수는 대졸자의 월 소득, 직무만족도로 설정한다. 마지막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교유형, 학교 소재 지역을 설정하며 매개변수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수한 학과의 전공계열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하

여 Barons&Kenny의 매개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과정에서 다중회귀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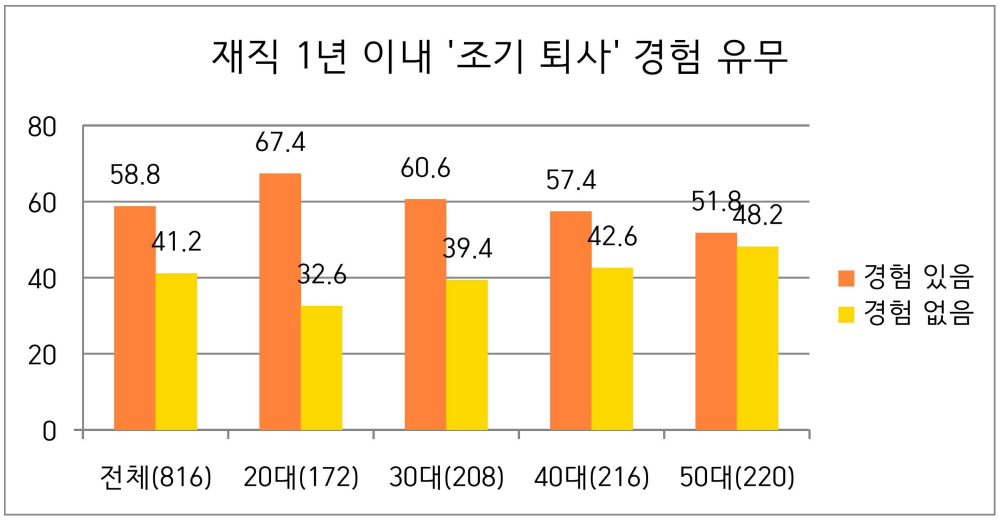
제 1 절 직무불만족 실태

1. 조기 퇴사율의 증가

<그림 1>은 재직 1년 이내‘ 조기 퇴사’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를 비율로 나타낸 자료이다. 자료에 따르면 ‘조직 퇴사’의 경험은 다양한 연령층 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질 정도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중 20대 층들의 조기 퇴사하고자 하는 경험이 없는 이에 비해 특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의하면, 20대 응답자의 경우 직무에 대한 비전, 미래 지향성 부족 등 자신의 ‘성장 가능성’과 연결 지어 퇴사를 고민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대 대부분이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해석할 수 있다. 최재혁, 이응택(2018)에 의하면 청년의 경우 고등학생 시절, 부모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치 않는 전공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모와의 대화가 청소년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은 청년기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는 직무만족도를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결국 잦은 조기퇴사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잦은 조기 퇴사율은 결국 해당 전공을 주업으로 하는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선 본인이 원치 않는 직무를 하여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조기퇴사율로 인해 한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한다(이지은, 송지영, 2022).

<그림 1> 재직 1년 이내 '조기 퇴사'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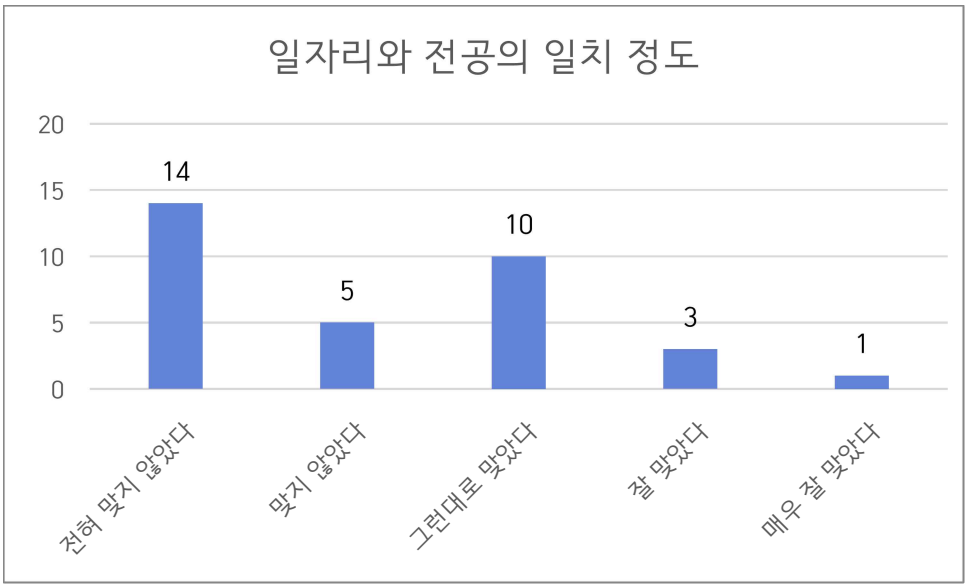
자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 적성과 전공선택, 전공과 직무 미스매칭

<그림 2>[1]는 대졸자 학생들의 전공과 현 일자리의 일치 정도를 나타낸다. 다수의 사람이 전공과 일자리와 맞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일자리를 전공에 맞춰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적성과 맞지 않은 전공선택은 추후 일자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미스매칭은 해당 업무에 대한 청년들의 업무능률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20대·30대 청년들의 직업 내 업무성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원치 않는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원인은 많지만 위 논문은 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9 GOMS 데이터에서의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정도'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제작한 그래프

<그림 2>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 정도



제 2 절 전공별 직무만족도와 소득 미스매칭

1. 대학기관 내 전공계열

대학기관에서 학생들이 개인의 가치관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계열별로 학과를 나눠놓는다. 전공계열 크게 대학에 따라 다른 분류로 나뉘기도 하지만 전형적으로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이라는 대분류로 나누곤 한다. 인문계열은 언어와 문학에 관련된 학과들을 가르치는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공계열이다. 대학 전공계열 중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계열에는 대표적으로 경영, 경제, 법, 사회과가 있다. 교육계열 같은 경우, 교육쪽을 다루는 학문으로 주로 교사나 학문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학계열은 기계, 장치 등 사람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 그 자체를 연구하는 자연과학과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계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의약계열이 있다. 의약계열에는 단순히 의대, 약대를 제외하고도 간호학, 치의학, 보건학 등 다양한 전공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된 전공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양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공들이 포함되어 있다(커리어넷, 2023).

2. 국내 전공계열별 취업률 및 임금

<표 1>은 대학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집계한 표이다. <표1>은 전공계열별로 각기 다른 취업률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이 취업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들의 평균 월평균소득은 249.6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의약계열 283.5만원, 공학계열 279.0만원, 사회계열 241.1만원, 자연계열 237.5만원, 인문계열 220.1만원, 교육계열 207.8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체능계열 187.1만원

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와 <표 1>의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통해 월평균소득과 취업률이 대체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전공계열별 취업현황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비고(19년)
인문계열	37,349	31,487	16,620	52.8	55.6
사회계열	89,255	80,034	27,044	58.8	61.4
교육계열	15,931	14,690	7,020	47.8	47.3
공학계열	83,350	73,723	47,382	64.3	67.0
자연계열	37,439	30,207	17,566	58.2	59.7
의약계열	25,138	24,158	19,809	82.0	84.4
예체능계열	35,157	30,695	18,491	60.2	62.5
[소계]	324,019	284,994	179,932	61.0	63.3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21.12.29.)

3. 전공계열에 따른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

21세기에 들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2]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분석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급격한 기술발전을 요인으로 꼽는다.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월평균소득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도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이는 국내의 환경과 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을 위해선 돈이 중요하다는 관념이 뿌리깊게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한국 교육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진환(1998) 분석에 따르면 소득과 직업 내 만족도는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선 이러한 관계가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계열군과 관련된 직업 내에 있어 소득과 만족도가 양의 관계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2)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

제 3 절 이론적 논의

1.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인간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 기술, 창의력 등을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Schultz, 1961). 특히 교육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개인이 특정 활동을 통해 얻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원천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이다. 노동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인 돈과 시간 외에도 건강과 교육 등 질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선직국에서 개별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는 지적능력이 신체적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적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즉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었다(Economic growth, 2016)

대표적인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로 학교 교육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본인만의 판단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인적자본 획득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안에서 성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주성환,최준혜, 2001). 청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은 대인이 소유한 인적자본에 의해 좌우되며, 인적자본의 축적정도는 학력, 자격증, 직업훈련 등으로 파악된다(김안국, 강순희, 2004).

인적자본에 기반한 대졸자의 취업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얻는다. 이로 인해 얻는 높은 성취감은 높은 직무만족도를 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질의 교육과 인적자본을 축적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은 주로 유년 시절 학교 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학교 교육과 사교육은 많은 경우 부모님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 이는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에 부모의 최종학력과 임금, 즉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

2. 신호이론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은 채용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이론으로, 앞서 언급한 인적자본이론의 교육, 생산성, 소득 간 단순한 인과관계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한다(강철희, 이홍직, 홍현미라, 2005).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형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주를 선별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호(Signal)로 작용한다는 것이 신호이론의 핵심이다.

시장에는 개인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경영자는 대학서열, 인종, 성별 등에 따라 근로자를 선발해야만 하는데 이때 인종이나 성별은 개인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일종의 외생 변수로 작용한다. 반면,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근로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전이, 유지현, 강영민, 박주호, 2017).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높다. 이러한 대학진학률이 대학 지명도나 대학서열을 신호이론의 대표적 변수로 분석된 바 있다(박미희, 홍백의, 2014).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자기만의 실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한데 노력을 통해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경우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요소이다. 즉, 개인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일종의 외생적인 변수로 마치 상수와 같이 작동하기에 직접 개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선행연구

Blau와 Duncan(1967)과 Sewell et al.(197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3] 이들은 미국의 직업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인구 조사 데이터, 교육통계, 경제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내 직업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종, 성별,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직업 결과와 사회적 이동성,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다중회귀분석과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교육이 개인의 직업 선택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하였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적인 기회를 확장할 수 있기에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도 결국 구조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가 없인 결국 불평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음을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교육을 통해 격차를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불평등이 일어난다. 김종엽(2003)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사회에서 가능한 주장이라 하였다. 한국교육방송(EB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적 격차는 자녀의 교육격차에 영향을 준다. 교육의 질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얼마나 학업열망을 가지는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명호(2010)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교육적 관심과 관여의 정도는 부모의 계급적 성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교육 자원을 결정함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

3) 하지만,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건강, 교육 자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학업 열의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적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분석하였다. 결국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녀의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 영향을 주어 자녀의 학업결과에 영향을 준다 분석하였다. 최필선, 민인식(2015)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수능성적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을 통해 본 교육수준과 자녀가 직업 내에서 받는 임금을 통해 측정한 노동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지원들은 단순한 결과인 성과가 아니라 자녀가 교육을 받는데 있어 학업에 대한 열망을 키워주는 역할도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자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높을 것이고 더 높은 효용을 위해 사회에서 평판이 좋고 취업이 잘되는 학문을 공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1) 직무만족도의 개념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선우지예, 2022). 직무만족도란 자기 직무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심리 상태를 말한다(구옥희, 최옥순, 2000).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와 업무환경과 경험에 대한 평가와 이 과정에서의 감정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 승진기회,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있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직무만족 연구의 선구자인 Hoppock(1935)은 사람이 그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생리적·

환경적 상황의 조합으로 직무만족을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Smith(1955)는 사후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개인이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상태에서 기인하는 일련의 태도를 직무만족으로 보았다. 유사하게 Locke(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의 평가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Gruneberg(1979)는 개인들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으로 직무만족을 정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Beatty and Schnier(1981)은 근로자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즐거운 감정 상태로 직무 만족을 정의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Locke(1976)의 관점에서 보는 직무만족도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졸자 학생들이 직무에서 얻는 결과라는 점을 초점으로 두어 대졸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석하면 자신이 대학에서 선택한 전공유형을 토대로 습득한 지식이 직무에 적용됨으로써 얻는 만족감으로 즐거운 감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인이 하는 직무에 대해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을 통해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얻는다 해석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직무 수행 후 받는 월급을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2) 보수만족 및 직무만족

보수만족과 직무만족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보수만족은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보수와 관련하여 느끼는 주관적, 심리적 태도로 근로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한 평가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정의된다(배무환·김영재, 2001). 이러한 보수만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urrall. S. C.et al., 2005)는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희태, 2009).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노력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은 구성

원들이 더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동기부여와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상호간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며, 그들의 일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진환, 1998).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변수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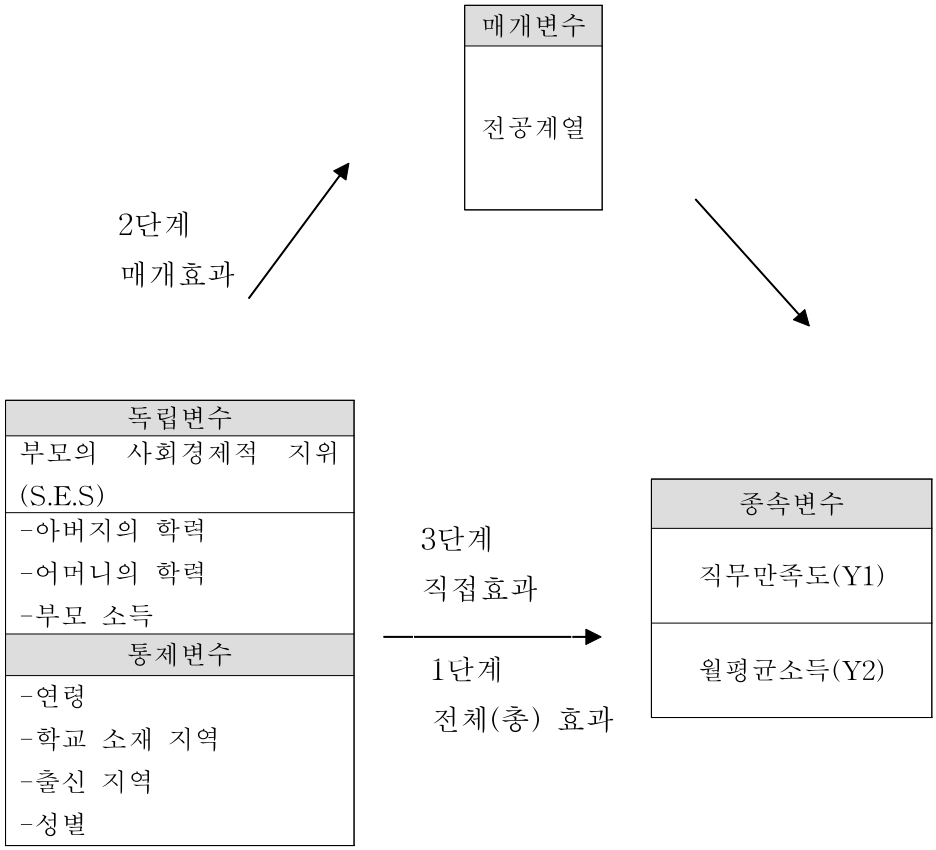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공계열을 경로로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전공유형이라는 변수를 경로로 하여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전공계열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가 종속변수인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출신 지역, 연령, 학교 소재지를 통제변수로 설정했으며, 이를 도식화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3>과 같다.

<그림 3> 연구분석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전공계열이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가 속한 직장에서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직무만족도나 월평균소득에 여러 영향요인이 있을 것인데,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이 영향을 주고 그 전공계열이 최종적으로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며 나아가 결정된 전공계열은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매개효과 모형(mediation effect model)은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준 후 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분해해 볼 수 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전체적 효과(total effect)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모형에서 전체적 효과는 간단하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수로,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를 전체적 효과로 설정하였다(고길곤, 2021)

허은주(1987)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은 넓은 의미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도 볼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이후 자녀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본인 직무에 있어 가지는 가치관과 만족도는 넓게 보아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생긴 가치관은 자식이 직업 내에서 느끼는 만족감, 혹은 사명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명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 또한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앞선 신호이론에 비춰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취업시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가 원하는 직업군에서 종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1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교육훈련과 소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적자본이론에서 핵심적이다. 인적이론은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의 몸속에 지식, 기술, 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의 증가 때문에 기업에서는 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양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할 것이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보다 더 좋은 교육훈련과 환경을 통해 높은 임금을 받고 편안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가설2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을수록 자녀의 월평균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한국의 부모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안정적이고 소득이 많은 직장을 가지길 희망한다. 이는 결국 자녀가 높은 소득,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더 높은 투자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해준다(김희삼, 2009; 방하남·김기헌, 2001; 안종범·전승훈, 2008; 우광호·안준기·황정수, 2010; 윤형호·김성준, 2009; 최지은·홍기석, 2011). 높은 지위에 있고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내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의약계열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녀는 의약계열 혹은 공학계열에 많이 진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생산력이 결정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훈련게 통해 부모님들은 본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위치만큼 자식이 올라오길 바랄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식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오길 바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더 취업에 유리하고 임금이 높은 전공계열(특히 의약계열)을 전공하길 바랄 것이라 예상하여 아래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다른 전공에 비해 의약계열을 택할 것이다

직무만족은 주로 임금, 종사하는 업무, 승진기회, 주변 환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임금'이다(James et al, 2014). 임금은 개인에 있어, 기본적인 노동의 보수이며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정의할 수 있다(이택호, 2014). 전공계열에 따라 종사하는 직업군은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전공계열별 학생들의 임금은 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높게 제공하는 전공계열일수록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직무만족도 그리고 월평균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전공계열을 선정하였다. 한진환(1998)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시적인 재정지표라 하였다. 이에 월평균소득, 특히 전공계열이 의약계열 혹은 공학계열일 때 월평균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직무만족도 역시 월소득평균의 방향을 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가설 4 : 월소득임금이 높은 전공계열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데이터다. GOMS는 매년 전년도 대학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 후 조사기준년 익일년 2월에 공표하는 횡단면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 통계다.

연구의 매개변수는 대학의 전공계열로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6가지 항목을 지닌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를 사용하여 추출된 표본으로 학교별 무작위로 30%의 표본을 확과소분류별로 층화추출한 자료이다. 최종적으로 5개 권역, 성별, 학교유형별 통계가 유의하도록 표본이 추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전공계열 안에서 표본들이 유의하도록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자료가 제공된 시점인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19 GOMS 응답자 중 사회 초년생으로 설정한다. 추가적으로 분석은 설문자 중 취업자(현재 일자리가 있는 모든 응답자)들만 답하도록 되어 있는 문항들을 이용하였기에 대졸자 중에서도 취업한 대상들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를 제외 후 최종 분석사례 7,933명이 도출되었다.

제 2 절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임금은 조사대상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과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을 질의하는 항목에 의해 정해진다. GOMS 설문 문항 중 '현재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답안을 한정하였다. 해당 질문은 5개의 답안이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 답안으로 질적인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양적인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인 임금은 조사대상자의 만족 월평균소득을 통해 확인하였다. GOMS 설문 문항 중 취업자만을 대상(현재 일자리가 있는 모든 응답자)으로만 질의하는 질문란에서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답안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월평균소득을 묻는 항목에 답안 항목을 사용하였다. 답안이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에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가설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개인 월평균소득을 독립변수인 부모 소득과 부모 학력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상위개념을 설명하는 하위 항목들이다. 이에,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부모 총소득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소득이나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심재휘· 김경근, 2013, 길혜지·최윤미, 2014),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한성민·문상호·이숙종, 2016). 본 연구는 취업에 있어 구체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모두 마지막까지 이수를 완료한 학력을 사용하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3년제 초급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으로 7개의 답안으로 구성하였다.

부모님 학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안들은 서로 상하관계가 없는 항목들이지만 분석을 위해 상하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소득에 관한 문항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설문을 선택하였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0으로 설정 하였고 100만원 미만은,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답안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는 김민영(2013)에 의하면 학력, 월 소득, 경제활동상태(취업 여부)가 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을 알 수 있기에 해당 설문문항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의 가설은 매개변수인 전공계열이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종속 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매개변수로 대졸자의 전공계열로 설정하였다. 즉, 매개변수를 거쳐 각기 다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과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떤 다른 영향을 받는지 보고자 하였다.

전공계열은 국내 대학들의 전형적인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공계열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전공계열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길혜지·최윤미, 2014,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최국렬·김병수, 2013, 염동기·문상규·박성수, 2017). 이공계열이나 상경계열일수록 취업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 확률이 아니라 객관적 변수인 월평균소득과 주관적 변수인 직무

만족도로 종속변수를 나누어 각 변수에 매개변수를 경로로 하여 어떤 방향으로 다르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취업이라는 요소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량화되지 않은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의 변수이다. 이 변수들은 개인 단위에 맞춰 성별, 출신지역,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연령으로 선정하여 범주변수 형태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해당 변수들은 선행연구[4]를 토대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매개변수인 전공계열 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성별의 경우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현옥·이향연(2019)에 따르면 공과계열 학생과 비공과계열 학생간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 가치관,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 하였다.

출신지역의 경우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최국렬, 김병수, 2013).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개인과 그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나 상태, 태도 등 그들의 주관적인 상태도 포함된다(염동문 등, 2013). 따라서 종속변수가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인 위 연구에는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에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년제인지 2~3년제 대학의 여부는 청년들의 교육 습득 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배우는 장소에 따라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자본이나 인적 네트워크도 다를 것이기에 대학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인프라와 교육 정도가 각기 다를 것이다. 대학 소재지와 4년제 여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대학소재지와 4년제 여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박미희, 2019, 김성훈, 2014, 박환보, 2012, 문영만, 홍장표, 2019, 한

4) 아래 내용 참조

성민·문상호·이숙종, 2016,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GOMS에서 진학한 대학(원)의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항을 통해 대학소재지를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총 4개의 지역군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의 같은 경우 이성용·방하남(2009)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함을 분석하였다. Clark, A., Oswald, A., & Warr, P. (1996)의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령과 직무만족도간 메타분석에 의하면 연령은 직무만족도와 주로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린다는 결론을 밝혔다. 초창기엔 높았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가진다는 결론을 밝혔다. GOMS에서 설문자의 연령을 물어보는 문항을 바탕으로 해당변수를 통제하였다.

<표 2>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분류	세부 항목	변수 구성 설명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을 수치로 나타낸 값
독립변수	부모의 소득	0 = 소득이 없거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1(100만원 미만) ~ 7(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8 = 1000만원 이상
	부모의 학력	1(무학)~7(대학원)
통제변수	성별	1 = 남자 2 = 여자
	출신지역	17개 광역시 단체 더미화
	학교 유형	1 = 2~3년제 2 = 4년제
	학교 소재 지역	1 = 서울권 2 = 경기권 3 = 충청권 4 = 경상권 5 = 전라권
	연령	연령을 수치로 나타낸 값
매개변수	전공계열	1 = 인문계열 2 = 사회계열 3 = 교육계열 4 = 공학계열 5 = 자연계열 6 = 의약계열 7 = 예체능계열

제 3 절 분석 모형 및 방법

1.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모형

매개효과(mediating effects)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두 변수를 연결하는 변인의 영향력을 뜻한다(Frazier, Tix, Baron, 2004).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매개효과 검증방법은 Baron,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3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3단계 매개효과 검증과정은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주효과에 있어서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한 주효과에 있어서의 관계를 살펴보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원인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된 모형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매개효과로 구분하고 반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경우, 부분매개효과로 구분한다(지성호, 강영순, 2014).

매개효과 모형은 기본적으로 회귀모형을 다양하게 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매개효과 모형은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측정한 후 이 두 효과를 종합해서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고길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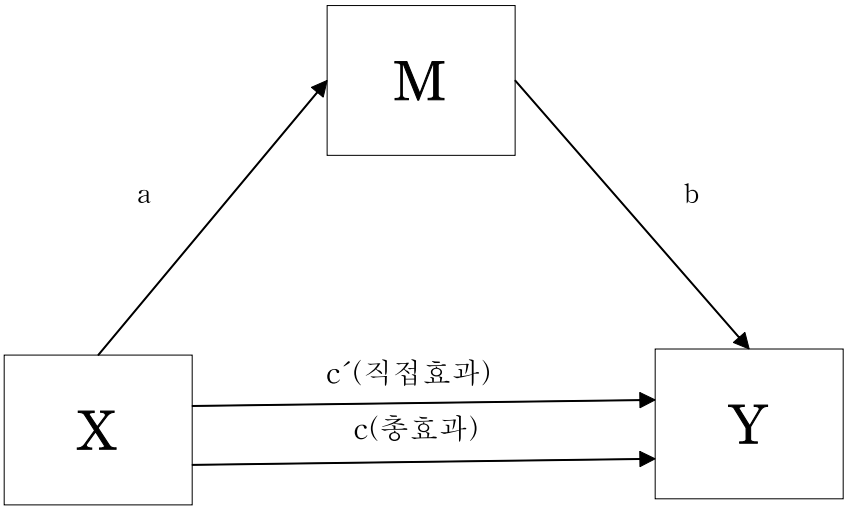
매개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원인변수와 매개변수 및 결과변수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특정 변수가 왜 매개변수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개모형을 구축하게 되면 분석결과의 논리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고길곤, 2021).

매개효과 모형에 대한 접근은 회귀분석 접근 방식과 반사실 기반 접근 방식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회귀분석 접근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논의의 상관성을 위해 원인변수를 X, 결과변수를 Y, 그리고 매개변

수를 M이라 표현한다(고길곤, 2021).

매개변수 추정모형의 기호를 주로 α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결과변수 추정모형의 회귀계수는 b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결과변수 결과변수 추정모형에서 직접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원인변수의 회귀계수는 c´, 총효과 추정을 위한 회귀모형에서 원인변수의 회귀계수는 c라고 기술을 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매개효과 모형



자료: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매개효과 모형이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매립효과의 성립조건

매개효과의 성립조건 (Baron & Kenny) 조건 1.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매개) 조건 2.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종속) 조건 3.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매개→종속) 조건 4. 매개변수를 포함한 경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이 조건 2.보다 적거나 없어야 한다. 만약 영향이 적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영향이 없다면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을 의미한다.

자료: Baron & Kenny, 1986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t model)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전공계열이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진 범주형 변수이기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으로,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할 때 사용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확장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전공계열은 총 7개의 범주를 포함하는 변수이기에 이에 적절한 분석방법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가 비순서형 선택(unordered choice)일 때, 다항(multinominal) 모형을 주로 사용한다. 가령, 종속변수가 취업 상태라고 하면 취업 상태라고 하면 취업 미취업, 비경제활동 이렇게 세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또는 결혼 상태라고 하면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인 경우, 현재 이혼한 경우로 범주를 분류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투표 시 정당 선택이나 제 2외국어 선택, 전공 선택 등도 다항 모형에 속한다. 종속변수가 선택형 범주라는 점에서 순서형 모형과 다항 모형은 동일하지만, 순서형 모형은 선택 범주들의 순서가 의미를 지니지만, 다항 모형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전공계열의 경우 각 전공계열의 서열은 없기에 다항 모형을 활용한다.

비순서형 선택 모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 다항 로짓모형, 조선부(conditional) 로짓모형, 또는 혼합(mixed) 로짓모형, 중첩(nested) 로짓모형으 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항 로짓모형은 각 개인이 특정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확률이 의사결정자인 개인 특성(individual-specific)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직업 선택이 전적으로 학력, 나이, 성별 등 개인의 특성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다항 로짓 모형에 속한다(민인식, 2012).

로지스킥 회귀분석의 목적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목표와 동일하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예측 모델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한

다는 관점에서 선형 회귀 분석과 유사할 수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classification)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알기 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종속변수를 단순히 Y로 두는 대신에 로짓 함수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로짓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p(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0~1값)를 단순하게 종속변수로 두어 선형회귀모형을 만들면 아래와 같다.

$$p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ldots + \beta_p \beta_q$$

하지만 이는 p가 0~1사이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아래와 같은 로짓함수로 변환시켜 x1,x2,...xq가 어떤값을 가지더라도 p가 항상 0과 1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p = \frac{1}{1 + e^{-(\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ldots + \beta_p x_q)}}$$

위의 식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오즈(odds)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된다.

$$Odds(Y=1) = \frac{p}{1-p}$$

오즈는 “클래스 0에 속하는 확률에 대한 클래스 1에 속하는 확률의 비”로 정의된다.

이 식들을 연립하고 로그를 씌우게 되면

$$\log(Odds)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ldots + \beta_p x_q$$

위와 같은 선형식이 나온다. 좌변을 로그오즈(로짓,logit)라고 하며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모형을 만드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수 β는 최소제고법 대신 최대가능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사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란 종속변수 Y가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질 때, 적용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이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 Y에 A,B,C라는 범주와 독립변수 x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2개의 유사로짓(pseudo logit) 식을 만들 수 있다

$$\log(A) = \log\frac{P(Y=A)}{P(Y=C)} = \alpha_1 + \beta_1 x$$

$$\log(B) = \log\frac{P(Y=B)}{P(Y=C)} = \alpha_2 + \beta_2 x$$

따라서 회귀계수 $\alpha_1, \beta_1, \alpha_2, \beta_2$를 추정할 때,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은 아래와 같다.

$$P(Y=A) = \frac{e^{\alpha_1+\beta_1 x}}{1+e^{\alpha_1+\beta_1 x}+e^{\alpha_2+\beta_2 x}}$$

$$P(Y=B) = \frac{e^{\alpha_2+\beta_2 x}}{1+e^{\alpha_1+\beta_1 x}+e^{\alpha_2+\beta_2 x}}$$

$$\begin{aligned} P(Y=C) &= 1-P(Y=A)-P(Y=B) \\ &= \frac{e^{\alpha_1+\beta_1 x}}{1+e^{\alpha_1+\beta_1 x}+e^{\alpha_2+\beta_2 x}} \end{aligned}$$

위의 식들을 일반화시켜 Y의 범주를 1, 2,....,라 하고 Y의 마지막 범주()를 기준 범주(baseline category)라 할 때,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P(Y=j)라 하면 유사로짓은 아래와 같다.

$$\log(j) = \log\frac{P(Y=j)}{P(Y=J)} = \alpha_j + \beta_j x \ (j = 1, 2, ..., J-1)$$

따라서 각 범주에 속할 확률 P(Y=j)은 다음과 같다.

$$P(Y=j) = \frac{e^{\alpha_j + \beta_j x}}{1 + \sum_{j=1}^{J-1} e^{\alpha_j + \beta_j x}}$$

$$P(Y=J) = \frac{1}{1 + \sum_{j=1}^{J-1} e^{\alpha_j + \beta_j x}}$$ (기준 범주에 속할 확률)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간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STATA SE 17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모형의 분석을 위해 총 5개의 회귀분석모형을 분석할 예정이며, 자녀의 전공계열의 선택을 매개변수로 두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Ⅰ. 직무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영향

경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 직무만족도
회귀식	$Y_1 = \alpha_0 + \alpha_1 x_1 + \alpha_2 x_2 + \alpha_3 x_3 + \sum_{n=4}^{8} \alpha_n z_{n-3} + \epsilon$
변수설명	-Y1 : 직무만족도 -X1 : 어머니 학력 -X2 : 아버지 학력 -X3 : 부모소득

	-Zn-3 : 통제변수 -ε : 잔차

Ⅱ. 월평균소득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영향

경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 월평균소득
회귀식	$Y_2 = \alpha_0 + \alpha_1 x_1 + \alpha_2 x_2 + \alpha_3 x_3 + \sum_{n=4}^{8} \alpha_n z_{n-3} + \epsilon$
변수설명	-Y2 : 월평균소득 -X1 : 어머니 학력 -X2 : 아버지 학력 -X3 : 부모소득 -Zn-3 : 통제변수 -ε : 잔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연속형 변수이기에 해당 분석들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겠다.

2단계: 매개효과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을 경로로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매개효과 모형

경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 전공계열
회귀식	$P(M=j) = \dfrac{e^{\alpha_j + \beta_j x}}{1 + \sum_{j=1}^{J-1} e^{\alpha_j + \beta_j x}}$
변수설명	-M : 전공계열 -J : 전공계열 수 -X : 독립변수 -Z : 통제변수 -ε : 잔차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이고 매개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에 해당 분석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겠다.

다음으로 자녀들의 전공계열 선택이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Ⅰ. 전공계열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

경로	전공계열 → 직무만족도
회귀식	$Y_1 = \alpha_0 + \alpha_1 m + \epsilon$
변수설명	-Y1 : 직무만족도 -M: 전공계열 -ε : 잔차

Ⅱ. 전공계열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영향

경로	전공계열 → 월평균소득
회귀식	$Y_2 = \alpha_0 + \alpha_1 m + \epsilon$
변수설명	-Y2 : 월평균소득 -M: 전공계열 -ε : 잔차

3단계: 직접효과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공계열과 동시에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Ⅰ.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

경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전공계열 → 직무만족도
회귀식	$Y_1 = a_0 + a_1 x_1 + a_2 x_2 + a_3 x_3 + a_4 m + a_5 z_1 + a_6 z_2 + a_7 z_3 + a_8 z_4 + a_9 z_5 + \epsilon$
변수설명	-Y1 : 직무만족도 -X1 : 어머니 학력 -X2 : 아버지 학력 -X3 : 부모소득

	-M : 전공계열 -Z1 : 연령 -Z2 : 학교유형 -Z3 : 학교 소재 지역 -Z4 : 출생지역 -Z5 : 성별 -ε : 잔차

Ⅱ. 월평균소득에 대한 직접효과

경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전공계열 → 월평균소득
회귀식	$Y_2 = a_0 + a_1x_1 + a_2x_2 + a_3x_3 + a_4m + a_5z_1 + a_6z_2 + a_7z_3 + a_8z_4 + a_9z_5 + \epsilon$
변수설명	-Y2 : 월평균소득 -X1 : 어머니 학력 -X2 : 아버지 학력 -X3 : 부모소득 -M : 전공계열 -Z1 : 연령 -Z2 : 학교유형 -Z3 : 학교 소재 지역 -Z4 : 출생지역 -Z5 : 성별 -ε : 잔차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 자료 분석

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알아보았다. 표본수는 필수 변수들에서 결측값이 있는 변수들을 처리하여 총 7,93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Y1)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직무만족도의 평균은 3.545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해 엄청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종속변수(Y2)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측정하기 위해 월평균소득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소득의 평균은 230만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위항목들이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은 7가지 답안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 최종학력의 평균은 4.976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최종학력의 평균은 4.664로 아버지들보단 낮지만 역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독립변수인 부모님 소득을 묻는 문항은 리커트 8점 척도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소득이 0원인 경우 모두 0으로 코딩했다. 부모님 소득의 평균값은 4.226으로 대부분의 부모님이 300~400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구분	변수명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3.545	4 (만족)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0.898
	월평균소득 (만원)	230.3	220	0	1,100	89.753
독립변수	어머니 최종학력 수준	4.664	4 (고등학교)	1 (무학)	7 (대학원)	1.133
	아버지 최종학력 수준	4.976	5 (2년제·3년제 초급대학)	1 (무학)	7 (대학원	1.251
	부모의 소득	4.226	4 (300~400만 미만)	0 (무소득)	8 (1,000만원 이상)	2.111
통제변수	연령	27	26	21	74	3.534
	성별	1,496	1 (남자)	1 (남자)	2 (여자)	0.500

※ 통제변수 : 연령,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출신 지역, 성별/ 매개변수: 전공계열
*** $p<0.001$, ** $p<0.01$, * $p<0.05$

2. 상관분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월평균소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부모소득이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수들이 상호간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수들 간 상관성의 크기와 방향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회귀분석의 독립성 가정 때문이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함에 있어 모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측정 변수들 간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 간 상관계수 값은 0.7 미만이었다. 연구에서 흔히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반적 상관계수 기준인 0.7 이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독립변수들 간 선형관계에 있을 경우 변수 간 상관계수가 낮더라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별도의 다중공선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종속변수인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는 연령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관계수

	아버님 최종학력	어머님 최종학력	부모님 소득	연령	직무 만족도	월평균 소득
아버지 최종학력	1					
어머니 최종학력	0.654***	1				
부모님 소득	0.233***	0.254***	1			
연령	-0.158***	-0.197***	0.059***	1		
직무만족도	0.043***	0.047***	0.059***	0.025**	1	
월평균소득	0.045***	0.036**	0.066***	0.174***	0.139***	1

***p<0.001 **p<0.01 *p<0.05

3.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실증 분석 방법으로 다항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귀분석과는 달리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먼저 진행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진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여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을 사전에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크다 판단한다. 분석결과, VIF가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록>에 다중공선성 결과값 제시

제 2 절 직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1단계: 전체효과 분석결과

1)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 어머니 학력과 부모님 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모님 소득 또한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선 학교유형과 성별이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표 6> 전체효과 분석결과(1)

구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3.347	0.118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027*	0.012
	아버지 학력	0.007	0.011
	부모님 소득	0.019***	0.005
통제변수	연령	-0.002	0.003
	학교유형	0.058*	0.027
	성별	-0.127***	0.021
R^2		0.020	
N		7,872	

※ 통제변수 : 연령,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출신 지역, 성별

*** $p<0.001$, ** $p<0.01$, * $p<0.05$

2)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 부모님 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부모님 소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선 연령, 학교 유형 그리고 성별이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종속변수인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님 소득은 월평균소득과 직무만족도 두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하다. 이를 통해 자식의 교육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의 요소는 이들의 소득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직무만족도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양육과정에서 자식에게 있어 어머니의 학문적 가치관이 아버지의 학문적 가치관에 비해 더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전체효과 분석결과(2)

구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월평균소득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99.349	15.489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694	1.174
	아버지 학력	1.694	0.976
	부모님 소득	3.009***	0.515
통제변수	연령	5.108***	0.510
	학교유형	9.797***	2.399
	성별	-30.503***	2.226
R^2		0.110	
N		7,872	

※ 통제변수 : 연령,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출신 지역, 성별

*** $p<0.001$, ** $p<0.01$, * $p<0.05$

2. 2단계: 매개효과 분석결과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졸자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의 전공계열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있어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을 기준 전공계열로 설정하였다.

<표8>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전공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낸 표다. 전공계열 중 인문계열을 예체는개열에 비해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의 요소들 중 유의한 변수는 부모님 소득의 변화였다.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자녀는 전공계열을 예체능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을 선호한다. 통제변수 중 학교소재지역은 모두 유의한 확률을 가졌고 출생지역같은 경우 지역마다 유의하기도 하고 유의하지 않기도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에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에 비해 사회계열을 학생들이 더 선호할 때, 독립변수들의 요소들 중 유의한 항목은 어머니 최종학력과 부모님 소득의 변화가 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는 사회계열을 선호한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는 전공계열을 예체능계열에 비해 사회계열을 선호한다. 통제변수 중 학교소재지역은 지역 모두 전공계열과 유의한 확률을 가졌고 출생지역 같은 경우 지역마다 유의하기도 하고 유의하지 않기도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가 예체능계열에 비해 사회계열에 진학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은 여성일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사회계열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에 비해 교육계열을 더 선호하는 경우, 독립변수들 중 유의한 요소는 어머니 최종학력이 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는 교육계열을 더 선호한다. 통제변수 중 학교 소재 지역은 일부 전공계열과 유의한 확률을 가졌고 일부는 유의한 확률을 가지지 않았다. 출생지역 같은 경우 지역마다 대체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 연령이 감소할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교육계열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을 학생들이 더 선호할 때, 독립변수들의 요소들 중 유의한 항목은 어머니 학력과 부모님 소득의 변화가 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공학계열을 선호한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는 전공계열을 예체능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을 선호한다. 통제변수 중 학교소재지역은 지역 모두 전공계열과 유의한 확률을 가졌고 출생지역 같은 경우 지역마다 유의하기도 하고 유의하지 않기도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가 예체능계열에 비해 사회계열에 진학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은 여성일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사회계열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을 선호하는 경우, 독립변수들의 요소들 중 유의한 요소는 어머니 최종학력과 부모님 소득의 변화가 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낮아질수록 자녀가 예체능계열 전공에 비해 자연계열을 선호할 확률이 커진다. 또한 부모님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자녀는 전공계열을 예체능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을 선호한다. 출생지역 같은 경우 지역마다 대체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수 중 연령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일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자연계열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을 더 선호하는 경우, 독립변수들 중 유의한 요소는 부모님 소득이 있다. 부모님 소득이 감소할 때마다 자녀가 예체능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을 선호한다. 또한 부모님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자녀는 전공계열을 예체능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을 선호한다. 통제변수 중 학교소재지역은 대부분 전공계열과 유의한 확률을 가졌다. 출생지역같은 경우 지역마다 대체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제변인 중 연령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일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에 비해 의약계열에 학생들이 더 진학하게 되는 결과를 보았을 때, 독립변수의 요소들 중 유의한 요소는 부모님 소득의 변화가 있다.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는 전공계열을 예체능계열에 비해 의약계열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 통제변수 중 학교 소재 지역은 대부분 전공계열과 유의한 관계를 가졌고 출생지역같은 경우 지역마다 유의하기도 하고 유의하지 않기도 하다. 통제변인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에 진학하는 양상을 보였고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주로 어머니 학력과 부모님 소득의 변화가 전공계열 선택에 있어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이 두 요소가 자녀들의 전공선택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소득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자녀가 더 자유롭게 전공계열을 선택할 수 있고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같은 경우,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유의한 변수가 아예 없는 것에 비해 여러 전공계열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 부모 중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고 해석된다.

<표 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

구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2.053**	0.678	-0.547	0.585	0.254	0.994	1.660**	0.604	-0.152	0.115	-2.342***	0.656	(base)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060	0.059	-0.159**	0.054	0.145*	0.066	-0.126*	0.053	-0.120*	0.060	-0.040	0.065		
	아버지 학력	0.019	0.054	0.000	0.048	0.057	0.060	0.025	0.048	0.023	0.054	0.088	0.058		
	부모님 소득	0.050*	0.024	0.055*	0.222	0.047	0.027	0.053*	0.022	0.058*	0.025	0.085**	0.027		
통제변수	연령	0.051*	0.021	0.066***	0.018	-0.149***	0.035	0.004	0.020	-0.000	0.023	0.046*	0.020		
	학교유형	1.552***	0.166	0.654***	0.119	1.679***	0.188	0.341**	0.114	1.039***	0.142	-0.675***	0.127		
	성별	-0.224	0.116	-0.603***	0.104	-0.008	0.140	-2.075***	0.105	-0.837***	0.115	0.134	0.124		
Pseudo R^2		0.09													
N		7,872													

*** p<0.001, ** p<0.01, * p<0.05

2)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이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전공계열 선택은 각기 다른 전공별로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다른 영향을 주었다.

<표 9> 전공계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

구분	직무만족도(Y1)		월평균소득(Y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3.453	0.030	214.772***	2.919
인문	(base)			
사회	0.034	0.037	13.923***	3.693
교육	0.451***	0.045	5.406	3.796
공학	0.130***	0.035	33.737	3.435
자연	0.091*	0.040	1.682	3.890
의약	-0.007	0.045	53.072***	5.165
예체능	0.006	0.045	-27.488***	4.056
R^2	0.018		0.056	
N	7926			

*** p<0.001,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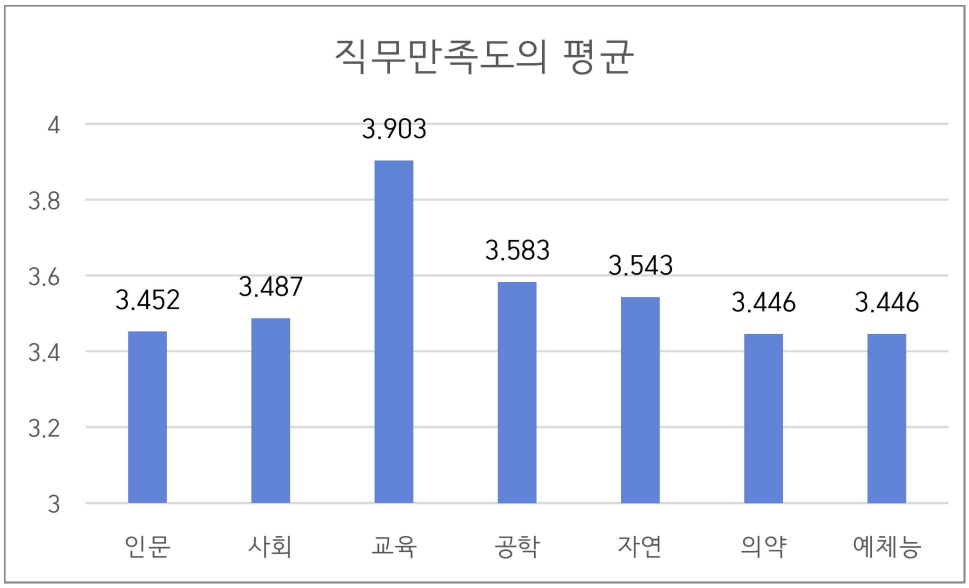
각 전공계열별 해당 계열에 속한 학생들의 직무만족도와 평균적 월평균소득을 도출하여 각 계열에 속한 값들을 더 명료하게 보기 위해 전공계열별 직무만족도의 평균과 전공계열별 월평균소득의 평균을 구해 비교가 편리하기 위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4>와 <그림5>는 각 전공계열별 직무만족도 평균과 월평균 근로소득의 평균(만원)을 나타낸다. 전공계열의 차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평균과 월평균 근로소득의 평균 분석결과에서는 꼭 직무만족도가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특히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교육계열의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의 평균이 220.2만원으로 전체 전공계열의 평균 근로소득인 226.3만원 비해 낮은 소득을 가진 것에 비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가장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고 의약계열의 경우 가장 높은 월평균소득을 보인 것에 비해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전공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선 한진환(1998)에 분석과 같이 소득과 직무만족도이 양의 상관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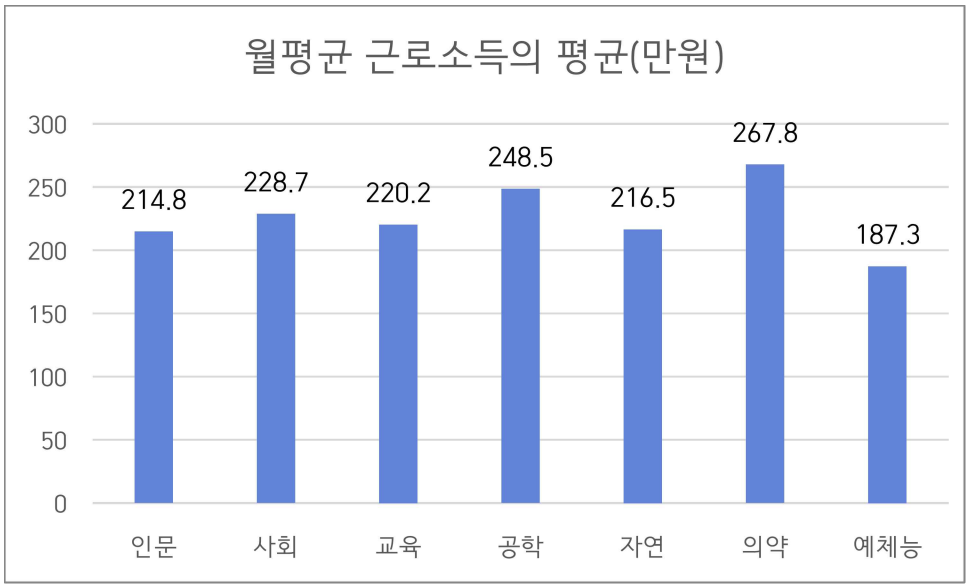
항상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포한다.

이는 전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임금이 직무만족도와 양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논문에서 소득과 직무만족도는 비례한다는 선행논문에서의 결론이 전공계열별 직무선택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전공별 직무만족도의 평균



<그림 6> 전공별 월평균 근로소득의 평균(만원)



3. 3단계: 직접효과 분석결과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원인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된 모형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1)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전공계열이 원인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되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중 부모의 소득만이 자녀의 일자리에서 부모님 소득에 영향을 준다. 부모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선 성별이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표 10> 직접효과모형 분석결과(1)

구분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 종속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전공계열 →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3.279	0.046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204	0.012
	아버지 학력	0.007	0.011
	부모님 소득	0.019***	0.005
통제변수	연령	0.001	0.003
	학교유형	0.035	0.028
	성별	-0.140***	0.093
R^2		0.110	
N		7,872	

*** p<0.001, ** p<0.01, * p<0.05

2)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전공계열이 원인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되어 자녀의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중 종속변수가 직무만족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만이 자녀의 일자리에서 부모님 소득에 영향을 준다. 부모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직장에서의 월평균소득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선 성별이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기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단독으로 월평균소득에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원인변수로 자녀의 전공계열이 통제되었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부모님 소득만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결국 전공계열에 의한 직업내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직무만족도와 받는 월평균소득은 결국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부모님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직접효과모형 분석결과(2)

구분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 종속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전공계열 → 월평균소득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83.370	14.948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764	1.145
	아버지 학력	1.309	0.952
	부모님 소득	2.711***	0.496
통제변수	연령	4.965***	0.470
	학교유형	17.863***	2.466
	성별	-27.820***	2.261
R^2		0.164	
N		7,872	

*** $p<0.001$, ** $p<0.01$, * $p<0.05$

제 3 절 분석결과의 요약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소득과 부모학력에 따른 자녀들의 전공계열 선택경로와 나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의 경우, 직접효과의 계수값과 직접효과와 매개효과가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계수값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공계열을 매개하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청년들의 직무만족도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부모의 소득 부문이 작용하는 영향에 있어 전공계열과 관련된 효과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월평균소득의 경우,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소득 부문이 작용하는 영향에 있어 직접효과의 계수값이 전공계열을 통제한 계수값에 비해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소득 부문이 자녀들의 월평균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분매개효과 모형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직접효과도 존재하지만 전공계열을 경로로 간접효과도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직무만족도(종합)

구분			1단계 (독립변수 → 종속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직무만족도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 종속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전공계열 → 직무만족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3.347	0.118	3.279	0.046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027*	0.012	0.204	0.012
	아버지 학력		0.008	0.011	0.007	0.011
	부모님 소득		0.019***	0.005	0.019***	0.005
통제변수	연령		-0.002	0.003	0.001	0.003
	학교유형 (1=2~3년제, 2=4년제)		0.058*	0.027	0.035	0.028
	성별 (1=남자, 2=여자)		-0.127***	0.021	-0.140***	0.023
매개변수	전공계열	인문			(base)	
		사회			0.027	0.037
		교육			0.457***	0.046
		공학			0.086*	0.037
		자연			0.068	0.041
		의약			0.027	0.046
		예체능			0.043	0.046
R^2			0.020		0.036	
N			7,872			

2단계: (독립변수 → 매개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전공계열 (전공계열을 연속형 변수로 설정)

※ 통제변수 : 연령,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출신 지역, 성별

*** p<0.001, ** p<0.01, * p<0.05

<표 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월평균소득(종합)

구분			1단계 (독립변수 → 종속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월평균소득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 종속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전공계열 → 월평균소득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99.349	15.489	83.370	14.948
독립변수	어머니 학력		0.694	1.174	0.764	1.145
	아버지 학력		1.694	0.976	1.309	0.952
	부모님 소득		3.009***	0.515	2.711***	0.496
통제변수	연령		5.108***	0.510	4.965***	0.470
	학교유형 (1=2~3년제, 2=4년제)		9.797***	2.399	17.863***	2.466
	성별 (1=남자, 2=여자)		-30.503***	2.226	-27.820***	2.261
매개변수	전공계열	인문			(base)	
		사회			15.931***	3.423
		교육			20.177***	3.699
		공학			29.388***	3.391
		자연			4.064	3.723
		의약			72.454***	5.036
		예체능			-13.950***	3.955
R^2			0.110		0.164	
N			7,872			

2단계: (독립변수 → 매개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전공계열

※ 통제변수 : 연령,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출신 지역, 성별

*** p<0.001, ** p<0.01, * p<0.05

제 4 절 실증분석의 종합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실행되지 않던 구체적 전공계열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이 두 종속변수같의 차이도 알아보았다.

<가설1>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직무만족도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졌고, 부모님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설2>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의 월평균소득과 유의하지 않가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월평균소득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설3>의 경우 다른 전공들에 비해 의약계열을 택하는 경우 모든 전공에 있어 아버지의 학력은 의약계열로 택하는 요인과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 같은 경우에 사회계열에서 의약계열을 택할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졌고 교육계열에서 의약계열을 택할 때 어머니의 학력이 낮아졌다. 또한 나머지 전공계열들에 있어선 p값으로 인해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모님 소득 같은 경우 예체능계열서 의약계열을 택할 때 부모소득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전공계열에 있어선 p값으로 인해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설4>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은 전공계열이 항상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기각하였다.

<표 14> 실증분석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결과
가설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다**	
	· 아버지의 학력이 더 높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다	기각
	· 어머니의 학력이 더 높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다	채택
	· 부모님의 소득이 더 높을수록 자녀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월평균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 아버지의 학력이 더 높을수록 자녀의 월평균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기각
	· 어머니의 학력이 더 높을수록 자녀의 월평균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기각
	· 부모님의 소득이 더 높을수록 자녀의 월평균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다른 전공에 비해 의약계열을 택할 것이다**	
	· 다른 전공에 비해 의약계열을 택하는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더 높을 것이다	기각
	· 다른 전공에 비해 의약계열을 택하는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더 높을 것이다	기각
	· 다른 전공에 비해 의약계열을 택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4	**월소득임금이 높은 전공계열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육계에서의 모습과 그에 알맞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Blau and Duncan(1967)이 언급했듯 부모의 사회적 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만 사회적 성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직무만족도와 월평균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부모의 사회적 수준 중 소득수준은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여 자녀의 직무만족도나 월평균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호이론(Spence, 1974)에서 언급하듯 교육을 거쳐서가 아닌 부모의 소득수준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여 개인의 다른 직업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부모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영향에 있어 전공계열을 매개하여 미치는 영향은 적었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이 그 자체로써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계열과 관련하여서도 정책에 있어 신중을 가하여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많은 대학에서 전공을 통폐합하는 정책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해당 정책을 통해 시대에 맞게 필요한 전공계열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계열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았듯이 의예과와 같이 월평균소득은 높지만 직무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전공계열들도 있고 교육계열처럼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직무만족도가 높은 전공계열도 존재한다. 프라임 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시대에 맞게 전공계열에 인원수를 맞추되,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전공계열들을 다양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 회귀계수와 교육을 매개로 한 회귀계수간의 비교를 통해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높은 계층의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 수준 격차를 매울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부모의 배경이 결국 교육 정책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Heckman and Lochner, 2000). 따라서 정부는 교육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받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세금과 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받는 영향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해당 연구는 2019 GOMS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자료는 횡단면 조사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다. 즉 시간 변화에 따른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019년이라는 해가 가장 최근자료여서 근래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시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대상을 여러 해에 걸쳐서 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표본집단이 졸업 후 1년이 지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도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특정 전공계열의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인턴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전공계열별로 실제로 취업하는 시기가 달라 표본집단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각 전공계열별 평균적으로 취업하게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설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aron & Kenny의 단계적 검정의 매개효과 모형을 사용하다는 과정에서 각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데에 있어선 통제변수들을 넣을 수 있었지만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그리고 매개변수에서 종속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선 통제변수를 넣지 못하였다.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선 통제변수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의 경우 해당 변수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통제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다. 추후 분석에서는 패널을 활용하여 시점에 따른 변화들을 살펴보고, 설문데이터 자체에 사용된 변수들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추가해 보다 정확한 회귀계수를 얻어 더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문 논문]

강철희, 이홍직 (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 (Human Capital Perspective) 과 인간능력관점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7(3), 223-249.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특성: 성, 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길혜지, 최윤미 (2014). 대졸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3(6), 1-26.

김성환, 박상우. (2008).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층의 직장 이행과정 분석-첫 직장 규모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1(4): 1479-1501.

김안국, 강순희. (2004).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7(1), 1-25.

김위정.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김종엽. (2003). [특집/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사회, 59, 55-77.

김효정, 곽선화. (2016). 직무불일치가 임금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7(2), 85-117.

김희삼. (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32(3), 27-59.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방하남, 김기헌.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석상훈. (2007). 빈곤의 지속: 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79-99.

선우지예. "공공부문 종사자의 세대별 직무만족 비교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손병돈. (2017). 한국에서 빈곤은 세대간 이전되는가? 사회보장연구, 33(4), 163-184.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5.

신명호. (2011).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한울아카데미.

안종범, 전승훈. (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119-142.

염동기, 문상규, 박성수. (2017).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취업진로연구, 7(4), 45-68.

우광호, 안준기, 황성수. (2010). 교육 및 부 (富) 의 세대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121-150.

유홍준, 정태인, 전은주. (2014). 한국 대졸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인구학, 37(2), 49-69.

윤형호, 김성준. (2009). 부의 대물림? 가계소득과 사교육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1(1), 49-68.

이계형. (2008). 대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회, 60(2): 53-76.

이일주, 이상철, 김양균. (2019).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544-555.

이전이, 유지현, 강영민, 박주호. (2017).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친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93-117.

이지은, 송지영. (2022).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조기 퇴사율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5(1), 161-186.

이택호. (2014). 임금만족의 선행요인이 직무모티베이션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이현옥, 이향연.(2019). 대학생의 전공계열 및 성별 집단에 따른 과학기술관련 인성과 가치관에 대한 특성 탐색. 교육과학연구, 50(3),107-130.

이희태. (2009). 공무원의 보수만족 영향요인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1(3), 125-142.

이희태. (2010). 공무원의 성과상여금만족도가 보수만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139-167.

주성환, 최준혜. (2001). 성별 노동시장 참가패턴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24(2), 63-94.

차종천. (1992). 사회계층의 구조화 과정. 황일청 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

편, 나남

지성호, 강영순. (2014). 사회과학분야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정 방법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121-3131.

최국렬, 김병수. (2013). 다중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대졸취업에 관련성을 갖는 변인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799-811.

최필선, 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최지은, 홍기석. (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143-163.

최재혁, 이응택. (2018). 고등학생의 부모관심, 진로정체감,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진로대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175-199.

한진환. (2013). 감정노동과 조직시민행동간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3, 305-322.

허은주. (1987).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국내 칼럼]

[이호선. (2021. 08. 03). 부모의 도덕성이 곧 아이의 도덕성이다-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하라는 부모. **정신의학신문**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24

[해외논문]

Agbozo, G. K., Owusu, I. S., Hoedoafia, M. A., & Atakorah, Y. B. (2017). The effect of work environment on job satisfaction: Evidence from the banking sector in Ghana.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5*(1),

12-18.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S1-S39.

Bjorklund and Jantti. (2009).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and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Blanden, J. and Gregg, P. (2004). Family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A Review of Approaches and Evidence for Britain*

Bloome, D. (2015). Income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3*(3): 1047-1080.

Chang, Y., & Edwards, J. K. (2015).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coping, and job satisfaction using social career cognitive theory: An SEM analysi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35-47.

Clark, A., Oswald, A., & Warr, P. (1996). Is job satisfaction U shaped in ag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9*(1), 57-81.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Corcoran, M. (1995). Rags to rags: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1), 237-267.

Currall, S. C., Towler, A. J., Judge, T. A., & Kohn, L. (2005). Pay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outcomes. *Personnel psychology, 58*(3), 613-640.

DiMaggio, P., & Mohr, J.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Erhel., C. (2010). "TLM 정책: 비교와 전망." TLM과 고용서비스 고용정보원.

Esping-Andersen, G. (2015). Welfare regimes and social stratificat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124-134.

Gibson, J., Ivancevich, J., & Konopaske, R. (2011).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McGraw-Hill Higher Education*.

Griffeth, R. W., Hom, P. W., & Gaertner, S. (2000).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employee turnover: Update, moderator tests,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next millennium. *Journal of management*, *26*(3), 463-488.

Harter, J. K., Schmidt, F. L., & Hayes, T. L. (2002). Business-unit-leve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engagement, and business outcome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2), 268.

Hoff, K. A., Song, Q. C., Wee, C. J., Phan, W. M. J., & Rounds, J. (2020). Interest fit and job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3*, 103503.

Hom, P. W., & Kinicki, A. J. (2001). Toward a greater understanding of how dissatisfaction drives employee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5), 975-987.

Hoppock, R. (1935). Job satisfaction.

Judge, T. A., Thoresen, C. J., Bono, J. E., & Patton, G. K. (2001). The job satisfaction - job performance relationship: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7*(3), 376.

Kooij, D. T., Guest, D. E., Clinton, M., Knight, T., Jansen, P. G., & Dikkers, J. S. (2013). How the impact of HR practices on employee well being and performance changes with ag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3*(1), 18-35.

Lamont, M., & Lareau, A. (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153-168.

Lapierre, L. M., Spector, P. E., & Leck, J. D. (2005). Sexual versus nonsexual workplace aggression and victims' overall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2), 155.

Meager, N. (2008). Self-employment Dynamics and 'Transitional Labour Markets': some more UK Evidence'. *Flexi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in Europe*, 195-222.

Muffels, R., Chung, H., Fouarge, D., Klammer, U., Luijkx, R., Manzoni, A., ... & Wilthagen, T. (2008). Flexicurity and security over the life cours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Musick, K., & Mare, R. D. (2006). Recent trends in the inheritance of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Social Science Research, 35*(2), 471-499.

O'Connell, P. (2007). Who generally trains? The effects of personal and workplace characteristics on training at work. Lassnigg et al.,(eds.), Lifelong Learning: Building Bridges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peldoorn, Belgium: Het Spinhuis.

Shields, M. A., & Price, S. W. (2002). Racial harassment,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s to quit: evidence from the British nursing profession. *Economica*, *69*(274), 295-326.

Weiss, H. M. (2002). Deconstructing job satisfaction: Separating evaluations, beliefs and affective experienc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2*(2), 173-194.

Yang, S. H., & Jeong, B. Y. (2020). Gender differences in wage,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sector employees. *Sustainability, 12*(20), 8514.

[국내 서적]

고길곤. (2021).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고양: 문우사.

민인식. (2012). STATA :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외국 서적]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Weil, D. (2016). Economic growth. Routledge

부 록

VIF(분산팽창지수) 검정 결과

변수명	VIF
아버지 학력	1.76
어머니 학력	1.78
부모 소득	1.10
연령	1.17
학교 유형	1.10
학교 소재 지역(경기권)	1.64
학교 소재 지역(충청권)	1.76
학교 소재 지역(경상권)	2.75
학교 소재 지역(전라권)	2.30
출신 지역(부산)	1.55
출신 지역(대구)	1.44
출신 지역(대전)	1.22
출신 지역(인천)	1.15
출신 지역(광주)	1.52
출신 지역(울산)	1.17
출신 지역(경기)	1.49
출신 지역(강원)	1.11
출신 지역(충북)	1.20
출신 지역(충남)	1.21
출신 지역(전북)	1.40
출신 지역(전남)	1.31
출신 지역(경북)	1.36
출신 지역(경남)	1.45
출신 지역(제주)	1.07
출신 지역(세종)	1.04
성별	1.12
Mean VIF	1.43

Abstract

The Impa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n's Job Satisfaction

Sangwoo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many students in their 20s and 30s are easily feeling bored with their own occupations. This is resulting in lower job satisfaction for them. It is believed that external factors play a role in this phenomen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ir children's job satisfaction and average monthly income, considering it as an external factor. Using the 2019 GOMS survey data, we conducted an analysis using a mediation model.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ir children's major choice, which in turn affects job satisfaction and monthly income. To empirically analyze the mediation model, poly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affects their children's choice of college major, which in turn has a direct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monthly income.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children's job satisfaction is higher when their parents have higher education levels and income. As for monthly income, children's income tends to be higher when their parents have higher income. The influence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ir children's choice of medical majors was found to be minimal. Additionally, it was observed that higher monthly income in a specific major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higher job satisfaction.

In summary, it appears that reducing the income disparity derived from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would have a greater impact on job satisfaction within occupations for students, rather than narrowing the educational gap among them.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education policies to minimize the socioeconomic disparity that young people receive from their paren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mpact of income disparity from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direct economic support such as taxes and subsidies.

Moreover,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major choices and their parents' job satisfaction and monthly income suggests that m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when making decisions about university major selections, especially during the process of merging specific departments. It is important to assess whether students from these departments can achieve similar levels

of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other major fields.

Keyword :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job satisfaction, monthly income, major field
Student Number : 2021-24700